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에 관한 탐색연구

백유미*

An Exploratory Study on Undergraduates'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Learning Attitudes

Baek Yu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line through scatter diagram analysis on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learning attitudes, figure out the knee point influencing learning attitudes negatively in detail, and examine influence among subareas. To address the goal, study questions ar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is author did screening on the data of variables measured and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Second, this researcher produced the trend line by drawing a scatter diagram in order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ies, withdrawal symptoms, excessive communication, and excessive time wasting, and learning attitudes exploratorily. Third, to explore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al attitudes, the subfactors of learning attitudes related to SNS addiction tendencies, this author drew a scatter diagram and analyzed the threshold of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 To verify the study questions,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and learning attitude scale were applied to 301 university students in Chungcheong area.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first, their learning attitudes are influenced by SNS addiction tendencies, excessive communication and excessive time wasting, and they are not influenced by withdrawal symptoms that much. Second, excessive communication, a factor of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self-evaluation and developmental attitudes, factors of learning attitudes, show positive correlation to some extent and indicate negative correlation after the threshold. However, excessive communica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are found to show no correl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correlation with learning attitudes by dividing them into excessive communication and excessive time wasting groups with the knee point of 1.40, as the symptom of excessive communication is found more, it influences self-evaluation, learning participation, developmental attitudes, and learning attitudes more negatively in genera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foundational material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undergraduates' excessive SNS use and SNS addiction which can be used in the scenes of counseling or education.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SNS), Undergraduate, SNS Addiction Tendencies, Learning Attitudes, Exploratory Study

I. 서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의 사용자가 2016년 한국 전체 국민의 44.2%로, 2011년 16.8% 이후 SNS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1]. SNS는 인터넷을 기반으

*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조교수

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그리고 인맥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2].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에서 94.85%가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30대의 88.6%나 10대 86.5% 보다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그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하는 대학생은 98.2%로, 이 중 82.6%가 매일 SNS를 접속한다고 응답하였다[4].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은 SNS 이용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다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SNS와 함께 한다. 대학생 시기는 우정이나 친구의 반응 등에 민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5].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SNS 사용은 대학생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 대학에 대한 애착 등을 포함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중요한데[6], 가상공간에서 사용하는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인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사회활동을 감소시키고, 우울증,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학업문제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8].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이어 학업수행 및 전공에 따른 직업의 준비로 인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업수행에 있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

인 학업정서가 노력, 자기조절, 심층적 인지 몰두와 같은 동기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적합한 사고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업정서가 실제적으로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9]. 그러나 대학생 73%가 SNS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일종의 금단증상을 보인다고 하여[10] SNS를 과다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SNS의 높은 사용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SNS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은 매우 중요하며[11],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능력만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고[5], 박종순, 이종만[12]의 연구에서는 불안, 1일 SNS 이용시간, SNS 이용목적, 성별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하였으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과 긍정학업정서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다[5].

이와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태도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분석과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를 직선적 선형 관계를 가정하고 접근하였고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탐색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는 학술적 문제가 아닌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이 어느 측면에서는 긍

정적 측면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탐색을 해야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산포도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둘째, SNS 중독경향성인 금단,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를 추세를 통해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을 알아내며, 셋째, 각 하위영역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대학생의 SNS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대처방식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 4장에서는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해보고,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 영역인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 따른 학습태도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2.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동기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s)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SNS 이용자들끼리 직접 마주보며 면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기계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SNS를 이용하는 방식은 SNS 사용자들의 이용동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록 이용동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

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이용동기가 이용자의 행동이나 행동 방향을 설정하거나, 행동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다[13].

SNS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로 SNS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Schaefer와 Cora[14]의 연구에서는 SNS의 이용동기로 관계유지, 연결확장, 관계형성, 정보검색, 오락, 사고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Barker[15]의 연구는 오락, 사고, 가상 우정 등이 SNS 이용동기로 밝혀졌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16].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의 이용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미/자기표현, 부정적 인식, 친교 등의 이용동기 요인이 도출되었고 [1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미/자기표현은 부정적 인식, 친교보다 강한 구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홍진과 황유선[17]의 연구에서는 휴식과 오락, 관계유지, 공유, 정보교환 등의 이용동기가 미디어 이용과 연관성이 높았고, 페이스북 이용에 대한 김유정[18]의 연구에서는 오락추구, 정보검색,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이용동기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동기를 여가, 정보추구, 사회적 상호작용, 오락, 의견표현, 정보공유, 타인감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9]. 비록 SNS 이용동기가 연구자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비슷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용동기 차원은 정보에 대한 요인이나 상호작용, 유희성이나 오락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표현을 하며, 사

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등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20]. 즉, 정보습득이나 관계유지, 정보나 일상의 기록 및 저장,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맺기 등의 여러 동기들이 SNS 이용동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이란 SNS의 과다 사용으로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신체적 질환 및 개인의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SNS 사용시간에 대한 통제와 어려움과 일상생활 및 학업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21]. 특히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SNS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10],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신체적 건강과 학습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7].

또한 SNS 사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회불안, 외로움, 우울, 사회적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22, 23]. SNS 주요 사용자인 대학생들의 SNS 중독관련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자아정체성과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4], 학업성적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며[25], 가족이나 동료로부터의 이탈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저하시키는[23]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인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SNS 중독예방을 위한 대안제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SNS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가져왔다. Goldberg[26]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 중독되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회적이나 직업적 또는 여가 활동을 줄이고 심지어 수면부족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를 가져와 직업이나 학교를 소홀하게 된다고 했다. 즉 SNS 중독은 사회활동과 학습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2.3 학습태도

Knowles[27]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학습목표를 성취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학습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능동적으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며 성취한 학습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발적인 학습의 과정이며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ibbons[28]는 자기주도 학습의 요소로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기술과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자기주도의식과 학습 과정을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간에 학습자 스스로가 노력하여 자신의 지식, 기술, 성취감은 개인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초래한 결과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충청지역의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목적, 시행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동의한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5부로 회수율은 98.4%이었다. 응답자 중 설문응답을 최소 1개 이상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표기한 10명을 제외한 총 30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분석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SNS 중독경향성 척도이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NS 중독경향성은 SNS의 집착 및 금단증상, SNS의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사는 전공교수 1인과 대학원생 3인이 본 연구의 적합성 여부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K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과 학습태도의 연구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에 따른 사각회전(Oblimi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으로 요인

을 추출하였다. 17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요인 1은 금단, 요인 2는 과잉의사소통, 요인 3은 과도한 시간소비로 명명하였다. 한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은 .719~.903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측정 항목 간에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태도 검사 도구는 고혜아(2007)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설문지의 17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학습태도는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태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에 따른 사각회전(Oblimi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태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한 총 11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11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2>과 같이 요인 1은 학습참여, 요인 2는 자기평가, 요인 3은 발전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한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은 .630~.754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측정 항목 간에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문항	구성요소			하위 요인	신뢰도 계수
	요인1	요인2	요인3		
B17	.720	-.530	.173	금단	.903
B16	.696	-.516	.146		
B18	.693	-.493	.317		
B11	.689	-.497	.079		
B8	.687	-.598	.185		
B10	.660	-.594	.162		
B12	.645	-.464	.158		

B20	.641	-.524	.366		
B2	.588	-.882	.139	과잉의사소통	.857
B6	.570	-.821	.424		
B9	.608	-.803	.436		
B1	.567	-.755	.050		
B7	.582	-.720	.435		
B14	.563	-.605	.487		
B5	.189	.350	.783	과도한시간소비	.719
B4	.173	.423	.742		
B3	.176	.465	.738		
고유값	9.07	1.08	.65	전체	.940
분산의%	45.34	5.41	3.22		
누적률(%)	45.34	50.75	53.98		

<표 2> 학습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문항	구성요소			요인명	신뢰도계수
	요인1	요인2	요인3		
D9	.600	-.379	-.495	학습참여	.630
D6	.593	-.441	-.212		
D7	.510	-.144	-.271		
D3	.302	-.793	-.259	자기평가	.754
D1	.363	-.656	-.151		
D4	.300	-.607	-.252		
D2	.489	-.581	-.344		
D10	.290	-.201	-.668	발전적태도	.690
D11	.505	-.312	-.598		
D12	.574	-.459	-.581		
D14	.522	-.370	-.581		
고유값	3.648	.892	.384	전체	.829
분산의%	30.398	7.436	3.196		
누적률(%)	30.398	37.834	41.030		

3.3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대학생의 SNS 중독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충청지역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SNS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편의 표본 추출은 임의로 모집 편의를 고려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우나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이므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선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변인들의 자료를 스크리닝하고 기술통계량을 알아보았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인 금단,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 따른 학습태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포도를 그려서 추세를 산출하였다. 셋째, SNS중독경향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산포도를 그려 정적관계와 부적관계의 임계치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예비분석 : 자료스크리닝 및 기술통계량

1) 자료스크리닝

통계에서는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범위내가 아닌 별도의 값을 보이는 것을 특이치를 아웃라이어라 부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305명 중 1차로 학습태도 1점과 5점인 4명을 제거하고, 2차로 별도의 값을 보이는 특이치 6명을 제거하니 최종 293명이 남았다. 최종 293명의 개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포도 그래프를 그려 SNS 중독경향성, 학습몰입과 학습태도와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2) 기술통계량

연구대상자는 총 301명으로 남자 224명(74.4%),

여자 76명(25.3%)이었고,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80명(26.6%), 2학년 114명(37.9%), 3학년 87명(28.9%), 4학년 19명(6.3%)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21.29세였으며 표준편차는 2.47이었다.

<표 3> 인구특성의 현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24	74.4
	여자	76	25.3
	합계	301	100.0
학년	1학년	80	26.6
	2학년	114	37.9
	3학년	87	28.9
	4학년	19	6.3
	합계	301	100.0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기술통계량은 <표 3>와 같다. 남자는 총 213명, SNS 중독경향성 전체의 평균은 1.67, 표준편차는 .54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19, 표준편차는 .52였다. 여자는 총 73명이고 SNS 중독경향성 전체의 평균은 1.90, 표준편차는 .47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17, 표준편차는 .42였다. 또한 성별($t=3.39, p=.002$)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잉의사소통($t=4.46, p=.000$), 과도한 시간소비($t=4.29, p=.000$)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SNS 중독 경향성 가운데 과잉의사소통과 과도한 시간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총 285명, SNS 중독경향성 전체의 평균은 1.73, 표준편차는 .53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18, 표준편차는 .50이었다. 2학년은 총 76명, SNS 중독경향성 전체의 평균은 1.74, 표준편차는 .54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13, 표준편차는 .44였다. 3학년은 총 109명, SNS 중독경

향성 전체의 평균은 1.76, 표준편차는 .56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16, 표준편차는 .50이었다. 4학년은 총 85명, SNS 중독경향성 전체의 평균은 1.65, 표준편차는 .47이고, 학습태도 전체의 평균은 3.25, 표준편차는 .5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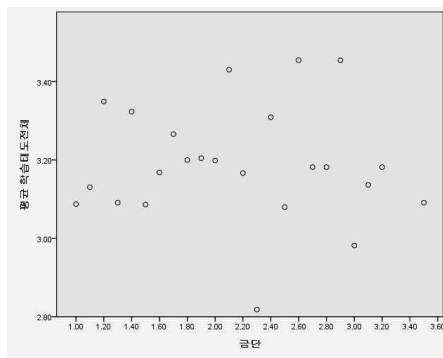
4.2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 탐색: 산포도 분석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금단,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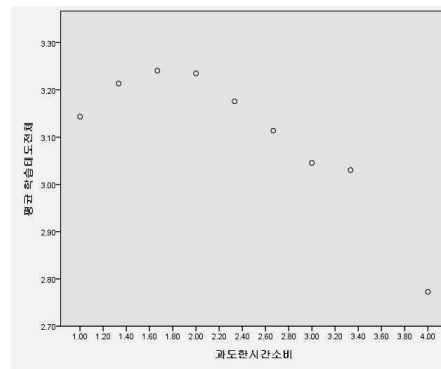
첫째, 금단과 학습태도와의 그래프를 보면 산포도가 무선적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금단과 학습태도와의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를 보면 산포도의 모양이 1.40까지는 오른쪽 상승 직선에 가깝고, 1.40이후부터는 아래쪽으로 사선방향이지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그래프를 보면 1.70까지는 오른쪽 상승 직선에 가깝고, 1.70이후부터는 아래쪽으로 사선방향이지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넷째, SNS 중독경향성 전체와 학습태도와의 그래프를 보면 산포도가 무선적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의사소통과 과도한 시간소비가 학습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변곡점을 알아냄으로써 변곡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학습태도의 하위요인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표 4> 성별 및 학년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과 학습태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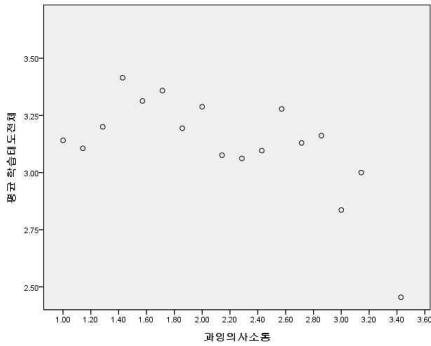
		금단	과잉 의사소통	과도한 시간 소비	SNS 중독 경향성 전체	자기 평가	학습 참여	발전적 태도	학습태도 전체	
성별	남자	빈도	216	216	215	213	217	217	217	217
		평균	1.60	1.72	1.84	1.67	3.20	3.06	3.30	3.19
		표준편차	.55	.60	.62	.54	.61	.67	.64	.52
	여자	빈도	73	75	74	72	75	75	75	75
		평균	1.72	2.05	2.20	1.90	3.20	3.10	3.21	3.17
		표준편차	.51	.54	.56244	.47	.58	.52	.48	.42
	t		-1.55	-4.23***	-4.29***	-3.39**	-.04	-.36	1.11	.22
p		.122	.000	.000	.002	.971	.721	.270	.827	
학년	1학년	빈도	289	291	289	285	292	292	292	292
		평균	1.63	1.80	1.94	1.73	3.19	3.07	3.27	3.18
		표준편차	.55	.61	.62	.53	.60	.63	.60	.50
	2학년	빈도	77	78	79	76	79	79	79	79
		평균	1.65	1.82	1.99	1.74	3.07	3.09	3.25	3.13
		표준편차	.54	.64	.64	.54	.60	.60	.46	.44
	3학년	빈도	110	111	110	109	111	111	111	111
		평균	1.70	1.84	1.96	1.76	3.21	3.02	3.21	3.16
		표준편차	.57	.62	.60	.56	.61	.63	.64	.50
	4학년	빈도	85	85	84	84	85	85	85	85
		평균	1.55	1.71	1.83	1.65	3.26	3.11	3.36	3.25
		표준편차	.47	.57	.58	.47	.62	.70	.64	.55
	F		.278	.416	.150	.382	.245	.822	.385	.469
	p		.278	.416	.150	.382	.245	.822	.385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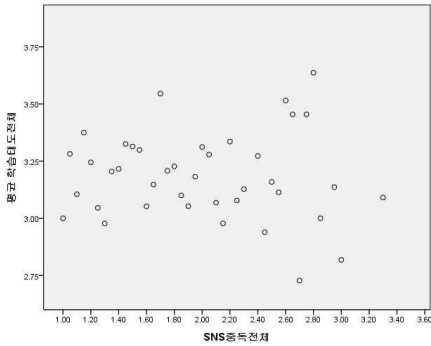
<그림 1> 금단과 학습태도와의 산포도



<그림 2>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산포도



<그림 3>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와의 산포도



<그림 4> SNS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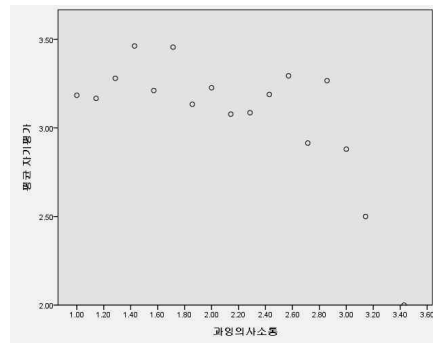
4.3 SNS 중독경향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하위 요인(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의 관계분석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잉의사소통과 과도한 시간소비가 학습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의 하위요인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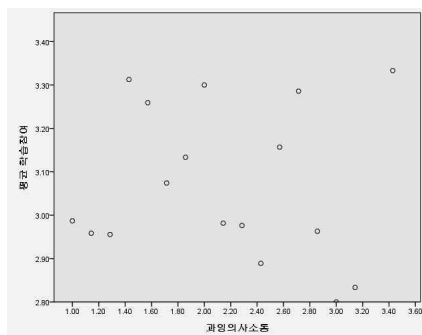
4.3.1 과잉의사소통 관련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 평균 그래프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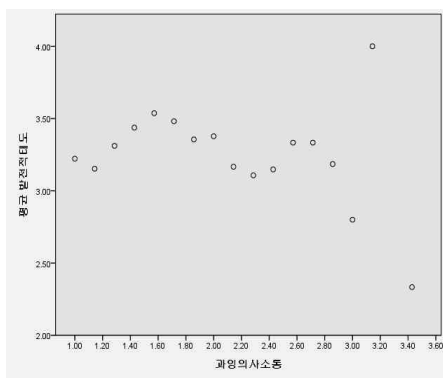
첫째, 과잉의사소통과 자기평가를 보면 산포도의 모양이 평평하다가 임계치를 지나면서 아래쪽 사선방향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잉의사소통과 자기평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과잉의사소통과 학습참여를 보면 산포도가 무선적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와의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과잉의사소통과 발전적 태도와의 그래프를 보면 일정 점수까지는 오른쪽 상승 직선에 가깝고, 변곡점부터는 아래쪽 사선방향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잉의사소통과 발전적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과잉의사소통과 자기평가와의 산포도



<그림 6> 과잉의사소통과 학습참여와의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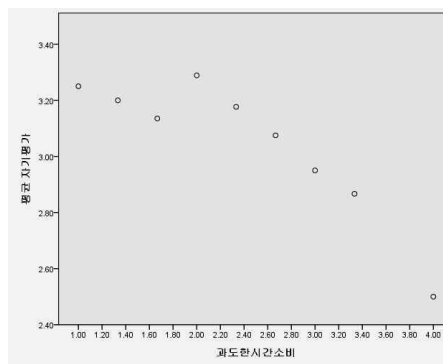
<그림 7> 과잉의사소통과 발전적 태도와의 산포도

4.3.2 과도한 시간소비 관련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 평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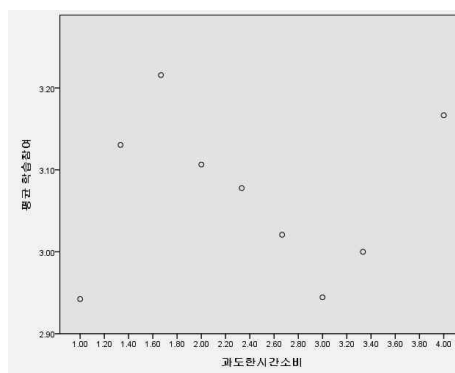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과도한 시간소비와 자기평가를 보면 산포도의 모양이 평평하다가 임계치를 지나면서 아래쪽 사선방향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시간소비와 자기평가는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참여를 보면 산포도가 일정 점수까지는 오른쪽 상승 직선에 가깝고, 변곡점부터는 아래쪽 사선방향으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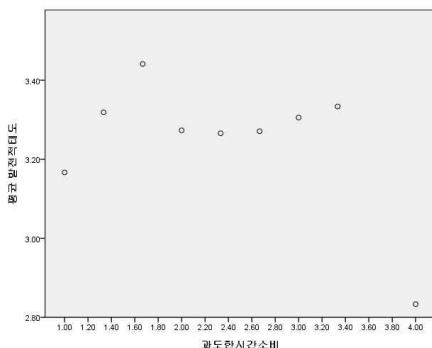
여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과도한 시간소비와 발전적 태도와의 그래프를 보면 일정 점수까지는 오른쪽 상승 직선에 가깝고, 변곡점부터는 평행한 직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도한 시간소비와 발전적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시간소비는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8> 과도한 시간소비와 자기평가와의 산포도



<그림 9>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참여와의 산포도



<그림 10> 과도한 시간소비와 발전적 태도와의 산포도

4.4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에 따라 학습태도와의 상관분석

1) 과잉의사소통과 학습태도와의 상관분석

과잉의사소통은 1.40기준으로 변곡점이 생기므로, 과잉의사소통의 집단을 1.40 이하와 1.40 이상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표 5> 과잉의사소통 집단

구분	빈도	백분율(%)
1집단(1.40이하)	90	30.8
2집단(1.40이상)	202	69.2
합계	292	100.0

먼저 1.40이하 집단의 학습몰입 하위변인인 과잉 의사소통과 학습태도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학습 참여, 발전적 태도, 학습태도 전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40이상의 집단의 과잉의사 소통과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상관계 수가 높지 않지만,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시말해 과잉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와 학습태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 6> 과잉의사소통 집단과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 평가	학습 참여	발전적 태도	학습 태도 전체
1집단(1.40이하)	.041	-.020	.030	.025
2집단(1.40이상)	-.195**	-.142*	-.187**	-.216**

2)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상관분석

과도한 시간소비는 1.70기준으로 변곡점이 생기므로,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을 1.70 이하와 1.70 이 상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7>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

구분	빈도	백분율(%)
1집단(1.70이하)	109	37.6
2집단(1.70이상)	181	62.4
합계	290	100.0

과도한 시간소비는 1.70기준으로 1.70이하 집단과 1.70이상 집단을 분류하여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먼저 1.70이하 집단의 학습몰입 하위변인인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발 전적 태도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기평가, 학습참여, 학습태도 전체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70이상 집단의 과 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니 상관계수가 높지 않지만,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 관을 보였다. 다시말해 과도한 시간소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와 학습태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표 8>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과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 평가	학습 참여	발전적 태도	학습 태도 전체
1집단(1.70이하)	-.073	.178	.210*	.079
2집단(1.70이상)	-.238**	-.056	-.025	-.155*

V. 결론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이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SNS 중독경향성인 금단,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추세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을 알아내고, 각 하위영역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별 따라 SNS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별로는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시간이 길거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아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2].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SNS 사용시간을 줄이고, 긍정학업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SNS 중독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금단,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니 SNS 중독경향성인 과잉의사소통, 과도한 시간소비에 따라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금단에 따라 학습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중독경향성은 전체적으로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 중 학습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업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정서 중 부정정서의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8]. 따라서 SNS 중독자가 아니어도 SNS 사용 임계치를 벗어나는 학생에게는 학습상황별 학습태도 대처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SNS 중독경향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해보니 과잉의사소통과 자기평가, 발전적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적관계를 이루다가 임계치를 벗어나면 부적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잉의사소통과 학습참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시간소비는 학습태도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NS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이 SNS의 이용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선행연구와[5],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았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 29]. 이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더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세계지향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상세계지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기조절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용과 실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변곡점인 1.40기준으로 과잉의사소통과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으로 분류하여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니 과잉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와 학습태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시간소비는 1.70기준으로 변곡점이 생기므로, 과도한 시간소비 집단을 1.70이하와 1.70이상으로 분류하여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니 1.70이하 집단의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인 과도한 시간소비와 학습태도의 하위변인인 발전적 태도와 정적 관계가 있고, 자기평가, 학습참여, 학습태도 전체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70 이상 집단의 과도한 시간소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학습참여, 발전적 태도와 학습태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을 주로 했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SNS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추세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을 알아냄으로써 SNS 중독군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대학생의 SNS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향후 상담장면, 교육장면에서 필요한 SNS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들의 중독경향성과 학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므로 향후에는 SNS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만을 대상으로 그 심각성 파악과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주재욱·정용찬·김윤화·오윤석,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pp.26-27.
- [2] 오은진·안성아, “대학생의 정신건강, 대학생활적응, SNS 중독경향성 연구,” 인문사회 21, 제8권, 제1호, 2017, pp.547-561.
- [3]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미래창조과학부, 2015.
- [4] 이인숙·조주연,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4권, 제5호, 2012, pp.2623-2633.
- [5] 전혜옥,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2016, pp.269-277.
- [6] Baker, R. W. and Siryk, M.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1984, pp.179-189.
- [7] 윤혜정·권경인,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1, pp.577-598.
- [8] 이현주·김혜경,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동스트레스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5, pp.3944-3953.
- [9] Pekrun, R., Goetz, T., Titz, W. and Perry, R. P.,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7, No.2, 2002,

- pp.91-105.
- [10] 최동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신체활동량, 수면의 질, 주의력 조절 및 자기조절 학습,"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5, pp.429-437.
- [11] 김형수,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지향성과 SNS 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제35권, 제2호, 2014, pp.11-26.
- [12] 박종순·이중만, "대학생들의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지향성이 MSNS(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2호, 2014, pp.213-227.
- [13] 최환진, "대학생 블로그·미니홈피 이용동기와 이용 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7권, 3호, 2006, pp.225-248.
- [14] Schaefer, Cora, "Motivations and Usage Patterns on Social Network Sites," Library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08 Proceedings, 2008, pp.143-156.
- [15] Barker, V.,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2), 2009, pp.209-213.
- [16] Ellison, N. B, Steinfield, C., and Lampe, C.,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2(4), 2007, pp.1143-1168.
- [17] 심홍진·황유선,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2호, 2010, pp.192-234.
- [18] 김유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이용과 충족 연구 - 페이스북 이용을 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20호, 2011, pp.71-105.
- [19] Whiting, A. & Williams, D., "Why people use social media: A 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Qualitative Marke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16(4), 2013, pp.362-369.
- [20] 이용재·황하성, "네이버 밴드와 기존 매체 이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6, pp. 29-58.
- [21] 오윤경,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012.
- [22] 하태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학회, 제27권, 제3호, 2016, pp.763-772.
- [23] 유현숙,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4] 서거, "페이스북(Facebook) 이용 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조항민,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6] Goldberg, L.,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y, 48, 1993, pp. 26-43.
- [27]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A

-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IL: Follett Publishing Co, 1975.
- [28] Gibbons, M.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Challenging adolescent students to excel,"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2.
- [29] 백유미, "스마트폰중독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7, pp.173-183.

■ 저자소개 ■



백유미
(Baek Yumi)

2011년 9월~현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
심리학과 교수
2009년 8월 한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2001년 2월 한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1998년 2월 한남대학교 교육학과(학사)

관심분야 : 가족상담, 집단상담
E-mail : edubym@jbm.ac.kr

논문접수일 : 2017년 10월 24일
수정일 : 2017년 12월 03일(1차), 12월 08일(2차)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1일